

배삼을 말하며, 이산삼은 어린 야생 산삼을 밭이나 산에 옮겨심어 생산한 것으로 장뇌삼을 말한다. 원삼은 가공방식에 따라 홍삼은 고온과 저온에서 찌서 말린 것으로 전수홍삼, 홍직수, 홍만수, 홍훈수 등이 있고, 생쇄삼은 신선삼을 음건으로 말린삼을 말하며, 전수생쇄, 백건삼, 백직수, 백만수, 백훈수 피미삼 등의 완제품이 있다. 당삼류는 씻은 후 10~15분간 데쳐서 설탕에 연속 3번 담근 후 30~40C에서 3~4일간 말린 것으로 당삼, 백인삼, 당삼노, 당직수, 당만수 등의 완제품이 있다.

<재배방법에 의한 구분>

- 재배삼(栽培蔘) : 인삼밭에서 인위적으로 기른 인삼. 중국의 재배삼은 주로 임간시설재배에서 생산한 것임.
- 임하삼(林下蔘) (중국) : 인삼 씨를 산지에 뿌려 10년 이상 재배한 것임 채종도 7-8년이 되어야 채종
- 장뇌삼(長腦蔘)(한국) : 인삼씨를 깊은 산중에 뿌려 산삼과 같이 자연 그대로 10년 이상 재배한 인삼
- 이산삼(移山蔘)(중국) : 한국사람이 말하는 장뇌삼은 山蔘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산에다 심어 사람의 정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자라난 인삼. 중국인들이 말하는 장뇌삼은 장뇌삼 씨를 받아서 밭에 파종하고 거름도 주고 물, 농약도 주어 재배. 이런 삼을 한국 사람들이 장뇌삼이라고 함. 따라서 한국장뇌삼=중국 이산삼임
- 산양삼(山養蔘)(한국) : 인삼씨나 인삼 묘종을 산에 옮겨 재배한 것.

(2) 중국 인삼 품종

(가) 재래종 특성

대마야(大馬牙)는 줄기가 짧고 인삼 몸체 부분이 짧고 굵으며 측근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줄기가 굵고 성장이 빠르고 병 저항성이 강하고 생산량이 많다. 주로 무송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가공원료로 많이 사용되며, 이마야(二馬牙)는 뿌리줄기 굵기가 중간 정도이며 인삼 몸체 부분이 길고 측근수가 적은 특징을 지님. 길림성 남부지역의 통화, 집안과 요녕성 관전과 환인 등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압록강 유역과 新開河 유역이 주산지이다. 변조홍삼을 주원료로 가공한 신개하홍삼은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원방원호(圓膀圓芦)는 二馬牙와 비교하여 근경이 길고, 방두(膀頭)는 둥글고 뿌리모양이 보기 좋으며, 식물체 키는 비교적 왜소하고 수량이 낮으며, 삼의 모양은 비교적 풍만하다. 식물체의 성장속도는 느린 편이며 주근형태의 대소는 二馬牙와 장발(長脖) 품종의 중간으로 산림재배에 적합한 품종이다. 석주삼은 장발노(長脖蘆) 품종으로 뿌리줄기가 가늘고 길며, 외피 주름이 깊고 가는 근이 수북하며 진주모양으로 줄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녕성 동부지역, 압록강유역의 산간 지역에서 재배됨. 생산량이 적고 성장주기가 길며, 요녕성 관전현 石柱子에서도 소량 재배하고 있으며, 백삼가공에 적합한 품종이다.